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15(2): 29~42, 2004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 경험과 교육요구도에 관한 연구

박 공 주 · 김 경 미 · 이 정 화 · 성 윤 숙 · 이 길 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신구대학 보육과*

A Study of Female Farmers' Experiences and Needs in Educational Program Participation

Park, Gong Ju · Gim, Gyung Mee · Lee, Jeong Hwa · Sung, Yun Sook · Lee, Kil Soon*
Rural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RDA, Suwon, Korea
*Dept. of Child care Education, Singu College, Songnam, Korea

ABSTRACT

Women are unlikely to receive an equal education, compared to men, in rural Korean society despite the equality in labor sharing. To address this issue this research aims to (a) analyze the educational needs for farming skills and daily life management in rural communities, and (b) develop a model for educational program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for the female farmers in order to make them experts in agriculture.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using a group interview method, to 366 female farmers from the Jeonnam, Chungbuk, and Gyeonggi provinces with help of agricultural agents. The major components of the questionnaire dealt with individual peculiarities,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urriculum and training subjects wanted by the female farmers. Educational program content was classified as daily life management, scientific farming and agricultural management skills to create systematic and effective programs. It was found that the critical factors for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female farmers are as follows: a.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combining daily life management skills and farming skills to make the female farmers experts in agriculture. b.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female farmers' educational program participation and needs based educational level, age, educational expenditure, farm type, farming experience, and farm sca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considering the fore-mentioned socioeconomic status and farming characteristics. c.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educational system for the female farmer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s a minority group in Korean society.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public relations program to ensure that female farmers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education.

Key words: women farmer, rural women, educational needs, educational programs.

접수일: 2004년 2월 19일 채택일: 2004년 4월 20일
Corresponding Author: Park, Gong Ju Tel: 82-31-299-0490
Fax: 82-31-299-0428 E-mail: parkgj@rda.go.kr

I. 서 론

미래학자들이 21세기의 화두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21세기에는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다. 강한 신체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힘의 시대, 즉 남성의 시대는 가고 지식과 정보·창의력이 강조되는 시대가 돌아옴으로써 여성들의 섬세한 감각이 능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경없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제반 양상들은 여성으로 하여금 계속 학습에 참여하도록 작용함으로써 여성의 사회교육 수요를 촉진시키고 있다. 여성의 사회교육은 여성들이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토록 함으로써 여성 자신의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진다.

여성농업인은 21세기의 한국농업을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농업에 참여하는 노동력 수에 있어서 남성을 능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업기술 및 가공·유통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촌의 노동력 유출로 농업노동력이 여성화, 고령화되어 현재 농가인구의 51.1%, 농업주종사자의 52.6%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의 농업 노동투하량이 47.2%(농림부 2001)로 나타나 농가에서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지위는 과거에 비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들은 도시에 비해, 또 남성에 비해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농업인으로서 습득해야 할 전문지식과 기술 교육 기회는 물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식의 습득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기회도 적다(임광명 1992; 김경미 2002).

따라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은 농업의 기간 노동력인 여성을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이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농촌여성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정생활교육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 농업여성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영농기술 교육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여성교육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도와 아울러 여성이 전문농업 경영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농사기술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영농에 관한 지식과 기술 교육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생활기술과 영농기술 교육을 서로 연계시킨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종합적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여성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농업인의 생활기술교육 및 영농기술 교육의 개념

1)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이라는 개념은 흔히 농촌여성, 농가주부, 여성농민 등과 같이 다양한 역할개념이 혼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역할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참여와 의사결정, 사회활동 등 다양한 척도가 동원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 여성농업인은 농가주부나 주부농민 여성에 비해 농장 중심적이며 농장 일을 가장 중요하고 즐길만한 활동으로 보고, 시간을 많이 들인다. 다른 여성들보다 경영 결정에 영향력이 크며, 여성들도 "남성의" 일에 뛰어난 특징을 보인다. 남성농업인들과 마찬가지로 생활 그 자체, 독립성, 훌륭한 농민이라는 명성과 자부심 등의 이유로 농업에 가치를 두는 반면, 농업비용, 농장경영, 노동자들과의 관계 등 농업경영과 직접 관련되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는다(김영옥·김이선 1999).

Gasson(1984)의 '여성농업인'은 독립생산자(independent operator)와 적극적 파트너(active partner), 여성가장(matriarch)을 통합한 유형으로서 전통적

인 농촌여성, 즉 농가주부나 주부농민과 비교해 가사와 농업분야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나며 농업과 가사, 사회활동 분야에서 여러 대조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과 가사영역에서 이중적 역할을 담당하는 농촌여성을 하나의 범주로 규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가정과 농장에서의 역할 중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농촌여성을 일련의 하위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농촌여성에 대해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농업일과 가사 가운데 농가주부는 가사에 우선순위를 두며, 농업보조자는 농가주부보다는 농업일에 쏟는 관심과 시간에 많지만 가사에서도 주부역할을 중시한다. 이에 비해, 농업파트너나 전문농업경영인은 가사보다는 농업부문이 역할의 중심이 되며, 농업참여의 의미도 노동력 제공에 한정되지 않고 농업경영에 있어서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김영옥 · 김이선 1999). 이상적인 수준에서는 이러한 역할유형이 비교적 명백히 구분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역할이 농업참여도, 의사결정참여도, 소유권,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사회활동 등 여러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만큼,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역할을 규정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실제로 많은 농촌여성들은 농가주부이자 동시에 주부농민이자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농촌여성'이란 용어는 농촌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총칭하는 편의적인 말로서 여성을 수동적이고 우연히 모여 살게 된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또한 그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건 아니건 농촌에 있는 여성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던 '농촌부녀자 또는 농촌여성'이라는 말은 농가의 다양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농업인으로서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서 '여성농업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이 생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은 농업 · 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 공급함으로써 농업 · 농촌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국민 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며(여성농업인육성법 2001), 만 15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농업 · 농촌 기본법 제3조제1호)'으로 규정하였다.

2) 생활기술교육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기술교육은 여성농업인이 처해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평생교육, 사회교육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생활기술교육(rural home improvement education)은 농촌가정생활개선교육, 생활과학기술교육과 같은 뜻의 용어로도 쓰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이한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용어 자체가 뚜렷한 구별이나 사용상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라순애 1992). 생활기술교육은 "농촌 주민생활의 개선을 위하여 가정, 지역사회에서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 · 사회문화적 활동에 참여하고 스스로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의, 식, 주, 가정관리, 경영, 취미, 육아 등의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임광명 1992).

3) 영농기술교육

영농기술교육은 과수, 채소, 화훼, 낙농, 비육우, 양돈, 양계, 양송이, 감귤, 양잠, 특작, 수도 등 작목별로 세분화된 과정을 설정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농촌진흥청훈령 1977)으로,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은 주로 농촌진흥청과 지방의 도 농업기술원과 시 ·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및 지역본부와 시 · 도지부에서도 회원조합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기술 교육은 여성농업인의 농업 생산성을 증진시켜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농기술 교육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실시하고 있지만, 남성에 비해 영농 기술이나 정보가 부족한 여성들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여성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영농분야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거나 하는 이유로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정기환 2001).

2. 여성농업인의 교육실태 및 영농참여 실태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역할 변화는 이농에 의한 농촌의 노동력 도시유출로 농업노동력이 여성화·고령화되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있다.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기존 가사노동과 농업노동 등으로 인해 노동량의 증가와 함께 증대되었다(임광명 1992). 이러한 여성의 역할 증대는 의사결정권을 높이고 여성의 지위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은 과다한 노동에 집중함으로써 증대되었지만 이는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교육 측면에서의 체계적 접근이 시급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은 사회교육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할 만큼의 교육기회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학교교육의 기회도 적다. 또한 학교교육을 마치고 난 여성들의 사회활동 역시 아직까지 남성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김정자 1986). 현대여성 사회교육은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즉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교육요구도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농촌여성의 생활개선 교육에 있어서도 요구분석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이는 요구분석을 통해서 농촌여성의 의견과 필요성이 교육에 반영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이다(라순애 1992).

일반농업인 교육의 여성참여율은 10%정도에 머물러 있어, 여성이 전체 농업인력의 절반을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육분야에서 여성들의 과소대표 현상이 뚜렷하다.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중 하나인 도단위 여성지도자 교육은 교양 및 일반의식교육이 대부분이어서 교육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군단위 교육의 경우 70% 가까운 비율이 생활교양, 합리적 농가생활과 가족관계, 건강관리 및 농작업보조장비 실습 등 생활개선교육이다. 여성농업인 대상교육은 기관별로, 단위별로 여러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만, 내용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이 일반교양 및 취미교육 중심이며, 기관의 특성도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여성농업인들은 대부분의 교육이 형식적,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시군단위의 영농교육과 농기계교육, 일회성 여성교육, 여성지도자교육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교육목표에 맞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그런'교육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도단위 영농교육이나 최고경영자과정, 사료회사교육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이들 교육은 여성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전문교육으로서 교육대상자가 느끼는 교육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교육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즉, 상당수의 여성농업인들은 이미 여러기관에서 하는 각종 교육에 여러번 참가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교육기회는 이미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기회의 부족보다는 내용의 부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김영옥·김이선 1999).

전세계적으로 농업인력의 여성화가 일반적 추세로 제기될 만큼 여성의 농업참여가 활발하다. 여성은 사하라사막 아래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전체 농업인력의 46%, 아시아에서는 45%, 카리브해안 지역에서는 40%,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는 31%를 차지한다(Dixon 1982). 그러나 여성의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는 기대가 퍼져있으며 이것은 농가, 지역사회, 국가정책 차원에서 여성농업인력에 대한 편견과 활동제한 관습을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김영옥·김이선 1999).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실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안덕현 외(2001)는 농업인력의 노령화와 함께 여성화의 현상이 뚜렷하여 여성인력이

농업인력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상당부분, 근래 쌀소비의 감소와 과일, 채소의 소비량 증가에 따라 영농형태가 벼농사 위주에서 여성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과수나 채소와 같은 영농형태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의 변화를 보면 1965년 30.3%에서 2001년 47.2%(농림부 2001)까지 증가하여 여성의 농업노동참여율이 남성과 비슷한 수준까지 되었으며 이는 영농에서 여성의 노동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안덕현 등 2001).

김이선(1997), 정기환(1997) 등은 1990년대 이후 상업화, 다각화 및 개방농정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이 여성의 농업참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 연구는 농업생산인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또 노동투하량도 증가하여 왔으나 여성은 여전히 영농의 보조자로 머물러 있는 현황을 사례조사 및 거시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농촌여성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과제는 대체로 복지적 차원에 머물렀다. 요컨대 인력개발의 측면에서 여성이 농업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다수 인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의 중심인력으로 자리잡지 못하는 요인은 무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취업여성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여성농업인은 취업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소외되어왔음을 지적하면서 여성농업인을 중심 인력으로 육성하는 정책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국여성농민연구소 1997).

Haugen(1990)이 노르웨이의 농장 남녀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농업교육이나 농업노동이나 기술적 노하우, 농민단체 및 연구집단 활동 등에서 남성경영자의 경우 연령집단간 차이가 나타내지 않은 데 비해, 여성농업인은 젊은 여성들이 고연령층 여성에 비해 농업이나 사회활동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연령층 여성들은 농민과 결혼해서 농사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농업을 직업으로서보다는 삶의 방식으로 보는데 비해 40세 이하의 젊은 여성농업인들은 농업을 직업으로서 선택했다는 직업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젊은 여성농업인들은 고령의 여성농업인과는 대조적으로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더 많이 가지는 '현대적 여성농업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남성농업인에 비해 여성농업인들의 의식과 역할은 빠르게 변화하고 젊은 여성농업인들은 농장에서 남성적 역할모델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별분업을 강조하는 사회화과정, 여성에 대한 기술교육의 제한, 이중역할에 따른 시간 부족, 육아서비스 부족, 남성중심적 기계개발 등 현대적 여성 전문농업인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Haugen 1990).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사회교육은 가정적·사회적 역할 변화와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농업생산자로서의 참여확대를 포함한 농업의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생활 및 영농에 필요한 지식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참여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2) 교육참여자의 교육환경 실태는 어떠한가?
3) 교육참여자의 참여특성별 요구는 어떠한가?
4) 교육참여자의 교육내용별 요구는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및 조사도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차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생활실태와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관련 문헌과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경기, 충북,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하였다. 조사 후 답변이 부실한 설문지 34부를 제외하고 366부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도구의 개발

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문항을 선정하였고, 조사 문항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교육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영농특성, 교육 참여자의 교육참여 실태 및 교육환경 요구 실태, 교육 참여자의 참여특성별 요구, 교육참여자의 교육분야별 요구, 받고싶은 교육의 우선순위, 교육희망에 대한 요구 등이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경기, 충북,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이 연구에서 파악된 결과를 모든 지역의 여성농업인 요구로 보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여성농업인 교육참여자의 특성과 교육환경의 관계, 교육참여자 특성별 교육요구와 내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x^2검증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교육참여자의 일반적특성

연령은 30대가 10.9%, 40대가 53.6%, 50대가 31.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30~50대의 중장년층 여성이 95.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력은 중졸이 41.4%로 가장 많았고 고졸도 32.1%를 나타내 중·고졸의 학력자가 73.5%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학습단체는 생활개선회가 58.7%, 새마을부녀회 15.9%, 농가주부모임이 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는 1.5ha 이상인 농가가 51.9%로 전국평균 농가당 영농규모인 4,110평과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영농유형은 벼농사농가가 58.4%, 노지와 시설 채소농가가 23.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논밭중심 농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조사대상자의 영농경험연수는 10년 이상인 전문농업인이 88.0%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 가족의 영농참여율은 남편은 47.8%, 주부인 본인은 43.1%로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투하량이 남성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2. 교육참여자의 교육환경 실태 및 요구

여성농업인 교육참여자의 교육환경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참여회수, 참여동기, 참여목적 등과 교육훈련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육시기,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방법, 강사선정 및 교육의 통합운영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교육참여 실태

교육참여 실태를 살펴보면(Table 1) 참여 99.2%, 비참여 0.8%로 대다수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1년 중에 교육에 참여하는 회수도 2회 이상이 80.3%를 보이고 있어, 비교적 교육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자발적인 참여는 34.2%이었으나, 주변인이나 교육실시 기관의 권유·요청에 의한 것이 64.5%로 나타나 현재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참여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교육참여 목적은 1순위가 교육내용에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54.5%)였고, 2순위는 생활기술을 익히기 위해서(18.9%), 3순위는 농사기술을 익히기 위해서(16.4%)로 나타나, 농촌여성 대부분이 무엇이든지 배울 기회를 원하고 있고, 새로운 지식·정보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이 교육에 참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농사일, 가사일로 시간내기가 힘들어서가 72.4%로 많았는데 이는 농촌여성에게 체계적인 생활시간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교육장소까지 교통이 불편함도 19.4%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어 교육장소 선정도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2) 교육훈련비 부담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훈련비 부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2). 응답 중 교육비를 자부담으로 낸 적이 있었다가 35.2%, 없었다는 64.8%로 나타나, 아직까지 자부담보다는 교육기관의 부담율이 더 높았으며, 1회 교육시 교육참

Table 1. Statistics of Educational Program Participation

	Classification	N(%)		Classification	N(%)
Frequency (N=366)	Never	3(0.8)	Motivation (N=366)	Voluntary participation	125(34.2)
	Once a year	69(18.9)		Recommendation byacquaintances such as husband, friend etc.	50(13.7)
	2~3 times a year	161(44.0)			
	More than 4 times a year	133(36.3)		Request or ecommendation by authority	186(50.8)
				Other	5(1.4)
Purpose (N=365)	Learning agricultural skills and knowledge	60(16.4)	Difficulties (N=366)	Lack of time due to cultivation	198(54.1)
				Lack of time due to family management	67(18.3)
	Learning life management	69(18.9)			
	Learning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199(54.5)		Lack of time due to child caring	14(3.8)
				Hard to commute to the education site	71(19.4)
	Improvement of social kills	33(9.0)			
	Other	4(1.1)		Lack of enough money	5(1.4)
				No support from the family	2(0.5)
				Other	9(2.5)

가자 1인당 평균 자부담액은 34,1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바라는 교육비 부담처는 교육기관과 본인의 공동부담이 50.7% 이었고, 교육기관 전담부담도 47.4%로 나타나, 교육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차츰 교육의 자부담율이 높아져 가는 현시점에 교육비 자부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여성농업인이 일년 중 교육받기가 가장 적합한 시기는 3월 19.0%, 2월 16.5%, 11월 12.0%로 나타났는데, 이는 11월~3월 사이 농한기를 이용하여 교육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5~6월 2.8%, 9~10월 9.5%로 나타나 이 시기에는 교육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간에 대한 요구는 1개 과정당 2일이 47.9%, 1일이 29.6%, 3일이 14.2%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어,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은 1~3일의 단기간에 걸친 교육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고 난 뒤 다시 받는 교육주기는 6개월에 한번이 37.2%, 3개월에 한번이 33.3%의 응답율을 보였다. 이는 3~6개월 한번씩 교육받기를 바라는 것으로 여성 1인에게 연 2~4회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육장소, 교육방법 및 강사선정

교육장소와 교육방법 및 강사선정에 대한 분석은 Table 3과 같다. 교육을 실시하는 지역별 요구정도를 보면 시군단위 43.2%, 도단위 35.0%로 두 지역에 대한 응답율이 높은 것은 중소도시 정도의 시군·도단위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은 개인주택(0.8%)이나 마을회관(3.0%) 보다는 사회교육기관(94.5%)을 월등히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회교육기관의 시설이 교육받기에 좋은 환경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이수 시에 선호하는 교육기관은 생활기술교육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등 농촌진흥기관을 67.9%가 선호하고 있었고, 다음이 각 문화센터를 희망하고 있었다. 영농기술에 관한 교

Table 2. Expense for Educational Program

Classification		N(%)		Classification	N(%)
Past payment (N=364)	Self	128(35.2)	Future payment (N=365)	Self	7(1.9)
	Education authority	236(64.8)		Self and educational authority	185(50.7)
				Educational authority	173(47.4)
Expense	Average payment per program, per person: 34,100 won				

Table 3. Educational Site, Method and Lecturer

Classification	Item	N(%)	Classification	Item	N(%)
Educational site by region (N=366)	*Metropolis*	31(8.5)	Educational site by field	Life management (N=364)	Agriculture promotion authorities (AP Center, Authority, Agriculture Tech Institute, AP Authority)	247(67.9)
	Province	128(35.0)			Public administration authorities (Province, city, county)	26(7.1)
	City · county	158(43.2)			Agriculture Unions	36(9.9)
	Street	46(12.6)			Cultural centers	52(14.3)
	Other	3(0.8)			Schools	3(0.8)
Educational site by facility (N=363)	Private housing	3(0.8)		Farming skills, farm management (N=359)	Agriculture promotion authorities (AP Center, Authority, Agriculture Tech Institute, AP Authority)	298(83.0)
	Town hall	11(3.0)			Public administration authorities(Province, city, county)	18(5.0)
	Public educational facility	343(94.5)			Agriculture Unions	35(9.7)
	Other	6(1.7)			Cultural centers	7(1.9)
					Schools	1(0.3)
Educational *method* (N=366)	Lecture	115(31.4)	Lecturer (N=365)	Employee of agricultural office(farming, supervisor, research)		278(76.2)
	Discussion	18(4.4)		Professor, teacher		53(14.5)
	Practice	168(45.9)		Professional such as Doctor, lawyer		17(4.7)
	Benchmark	16(16.7)		Public officer of city, county		8(2.2)
	Case study	2(0.5)		Leader in community		3(0.8)
	Multimedia presentation	4(1.1)		Other		6(1.6)

육을 받을 때 선호하는 교육기관은 농촌진흥기관이 83.0%로 가장 높았고, 농협이 9.7%로 나타났다.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 중 교육대상자의 참여도가 높은 실기실습교육이 45.9%로 가장 높았고 현장견학이 16.7%를 보이고 있어, 교육생의 참여식 교육을 주로 선호하고 있었고, 강의는 31.4%이었다.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강사는 농림 ·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76.2%로 농업관련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교수 · 의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가 19.1%로 나타났다.

5) 생활과 농사관련 기술내용의 통합운영식 교육운영에 대한 요구

Table 4는 생활기술과 영농기술 교육의 통합운영에 대한 요구도이다. 여성농업인이 교육에 참여할 때 영농기술과 생활기술을 통합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요구가 61.5%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생활기술과 영농기술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에서 이들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델 개발이 필요함

Table 4. Needs for Combination of Life and Farming Skill Education

Classification		N(%)
Needs for combin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N=360)	One program only	132(36.1)
	Combination of more than two programs	225(61.5)
	Other	3(0.8)

을 말해준다.

3.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자의 특성별 교육 요구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특성별 교육요구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able 5와 같이 학력, 영농규모, 영농유형, 교육비 부담여부 등의 특성에 따른 교육참여요구 차이정도에 대해 x^2검증을 하였다.

1) 일반특성별 교육 참여 요구

(1) 학력별 교육참여도

학력에 따라서 연 4회 이상으로 교육참여 회수가 많은 대상은 전문대졸 47.6%, 고졸42.7%, 중졸 31.1%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경험이 높고, 낮을수록 참여경험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최운실(1994) 연구와 같은 맥락의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x^2검증결과 유의수준 5%에서 학력별로 교육참여 회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졸에서부터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영농규모별 교육참여도

영농규모에 따른 교육참여도는 영농규모가 1.5~2ha미만인 농가에서는 연 4회 이상의 교육참여율이 46.3%로 가장 높았고, 2ha이상인 농가가 40.9%이었다. 영농규모별로 교육참여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영농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교육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영농유형별 교육참여도

영농유형을 벼농사, 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수,

Table 5. Needs for Educational Program Participation by General Characters

Unit: frequency(%)

	Classification	Frequency of participation				Total	χ^2 value
		None	once	2-3 times	More than 4 times		
Participation by Education	No schooling			1(25.0)	3(75.0)	4(100.0)	
	Elementary sch.	3(2.6)	14(19.4)	36(50.0)	22(30.6)	72(100.0)	24.41*
	Middle sch.		40(26.5)	64(42.4)	47(31.1)	151(100.0)	
	High sch.		11(9.4)	53(45.3)	50(42.7)	117(100.0)	df=12
	Over College		4(19.0)	7(33.3)	10(47.6)	21(100.0)	
	Total	3(0.8)	69(18.9)	161(44.1)	133(36.2)	366(100.0)	
Participation by farming scale	Less than 0.5ha		16(30.2)	22(41.5)	15(28.3)	53(100.0)	
	Less than 1ha	3(2.0)	8(12.5)	33(51.6)	23(35.9)	64(100.0)	27.75**
	Less than 1.5ha		20(33.9)	24(40.7)	15(25.4)	59(100.0)	df=12
	Less than 2ha		8(19.50	14(34.1)	19(46.3)	41(100.0)	
	More than 2ha		17(11.4)	68(45.6)	61(40.9)	149(100.0)	
	Total	3(0.8)	69(18.9)	161(44.0)	133(36.3)	366(100.0)	
Participation by farming type	Rice	1(0.5)	35(17.1)	100(48.8)	69(33.7)	205(100.0)	
	Vegetable grown infield	2(8.3)	8(16.0)	21(42.0)	21(42.0)	52(100.0)	
	Vegetable grown in green house		12(35.3)	14(41.2)	8(23.5)	34(100.0)	39.85*** df=15
	Fruit		9(25.0)	12(33.3)	15(41.7)	36(100.0)	
	Flower		1(4.2)	2(100.0)	15(62.5)	18(100.0)	
	Animal			6(25.0)		6(100.0)	
	Total	3(0.9)	65(18.5)	155(44.2)	128(36.5)	351(100.0)	
Participation by educational expense	Self payment		16(12.5)	52(40.6)	60(46.9)	128(100.0)	12.59**
	Payment by other	3(1.3)	53(22.5)	108(45.8)	72(30.5)	236(100.0)	df=3
	Total	3(0.8)	69(19.0)	160(44.0)	132(36.3)	364(100.0)	

*p<.05 **p<.01 ***p<.001

화훼, 축산 등 6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벼농사 농가에서는 연 2~3회 교육참여율이 48.8%로 가장 높았고, 노지채소 농가에서는 연 4회 이상 교육참여율이 42.0%, 시설채소 농가에서는 2~3회 교육참여율이 41.2%로 높았다. 과수(41.7%)와 축산농가(62.5%)에서도 연 4회 이상 교육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영농유형에 따른 교육참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4)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참여도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교육참여자의 참여율은 4회 이상이 46.9%, 2~3회가 40.6%로 나타났으며,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집단의 교육참여율은 4회 이상이 30.5%, 2~3회가 45.8%를 보이고 있었다.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참여도는 의미있는 응답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집단일수록 교육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기관의 여성교육에 있어서 교육비의 부담비율은 학습자와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교육의 질도 낮추어지지 않는 적정한 선에 조정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여성농업인 교육참여자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

여성농업인 교육참여자의 교육내용 요구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 학력, 영농경험에 따른 교육내용별 요구를 분석하였다(Table 6).

1) 교육분야별 교육요구

(1) 연령에 따른 생활기술교육내용 요구

받고싶은 생활기술교육내용을 1~3개, 4~6개, 7~9개로 나누었는데, 7~9개 교육내용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는 40대가 61.7%, 50대가 52.2%, 60세 이상이 14.3% 이었고 4~6개 교육내용의 요구

Table 6. Educational Needs by Educational Program Contents

Unit: frequency(%)

Classification		Contents needed			Total	χ^2 value
		1~3	4~6	7~9		
Life management skills by age	Under 29			1(100)	1(100.0)	60.35^{***} df=8
	30~39	1(2.5)	17(42.5)	22(55.0)	40(100.0)	
	40~49	7(3.6)	68(34.7)	121(61.7)	196(100.0)	
	50~59	11(9.6)	44(38.3)	60(52.2)	115(100.0)	
	Over 60	8(57.1)	4(28.6)	2(14.3)	14(100.0)	
	Total	27(7.4)	133(36.3)	206(56.3)	366(100.0)	
	Classification	Contents needed			Total	χ^2 value
		1~2	3~4	5~6		
Farming skills by education	No schooling	2(50.0)		2(50.0)	4(100.0)	22.50^{**} df=8
	Elementary sch.	5(6.9)	28(38.9)	39(54.2)	72(100.0)	
	Middle sch.	9(6.1)	56(37.8)	83(56.1)	148(100.0)	
	High sch.	19(17.1)	28(25.2)	64(57.7)	111(100.0)	
	Over College	4(22.2)	3(16.7)	11(61.1)	18(100.0)	
		39(11.0)	115(32.6)	159(56.4)	353(100.0)	
	Classification	Contents needed			Total	χ^2 value
		1	2	3		
Farm management by farming experience	Under 9	3(7.3)	15(36.6)	23(56.1)	41(100.0)	19.44^{*} df=8
	10~19	9(7.7)	33(28.2)	75(64.1)	117(100.0)	
	20~29	17(13.9)	24(17.7)	81(66.4)	122(100.0)	
	30~39	15(28.3)	11(20.8)	27(50.9)	53(100.0)	
	Over 40 years	2(18.2)	2(18.2)	7(63.6)	11(100.0)	
	Total	46(13.4)	85(24.7)	213(61.9)	344(100.0)	

$^{*}p<.05$ $^{**}p<.01$ $^{***}p<.001$

는 30대 42.5%, 40대 34.7%, 60세 이상이 28.6%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생활기술교육내용 요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나이가 젊을수록 생활기술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력에 따른 영농기술교육내용 요구

학력에 따른 영농기술교육의 요구는 같이 받고싶은 영농기술 교육내용을 1~2개, 3~4개, 5~6개로 구분하였을 때 비교적 많은 양인 5~6개의 영농기술 교육내용을 요구하는 학력간 비교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이상이 61.1%로 가장 높았고, 고졸이 57.7%, 중졸 56.1%로 나타났다. x^2검정 결과 학력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영농경험에 따른 농업경영 요구

받고싶은 농업경영 교육내용을 1, 2, 3개로 구분하고 농사연수와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면, 3개의 농업경영교육내용을 요구하는 집단은 농사연수가 20~29년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9년이 64.1%이었으며, 30년 이상은 50.9%로 나타났다.

2) 교육분야별 받고 싶은 교육의 우선 순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받아야 할 교육을 생활기술교육, 영농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Table 7과 같이, 받고 싶은 교육의 우선순위는 생활기술교육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영농기술교육으로 22.5%, 농업경영교육이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여성 사회교육과정 중 가정생활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관련 영농기술과 농업경영 교육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37.8%나 되어, 이것은 앞으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생활기술과 농업기술 교육이 통합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결과라 사료된다.

3) 교육경험과 교육희망에 대한 교육요구

그 동안 받았던 교육내용과 앞으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내용에 대한 요구를 비교 분석하였다(Table 8).

(1) 생활기술 교육내용의 교육경험과 요구

생활기술분야의 교육내용을 크게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교육경험과 교육희망을 비교하였는데, 교육경험이 많았던 생활기술내용은 「건강관리·피로회복」이 70.5%로 가장 높았고, 「농산물조리가공·식생활」이 68.9%이었으며 그 다음이 「취미·교양」으로 65.2%을 차지하였다. 이 항목들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교육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 중 「농산물조리가공·식생활」 부분에 대한 교육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화로 농가소득증대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생활기술분야 중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내용으로는 「건강관리·피로회복」이 83.9%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항목은 교육경험과 교육희망 모두 응답율이 높아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교육내용은 「컴퓨터교육」이 80.9%로 가장 높았고, 「가족관계·가계관리」가 79.5%로 높았다. 이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촌에 개인 컴퓨터 보급률이 높아진 이 시점에 컴퓨터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한 결과이며, 농촌에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족문제와 그 갈등해결에 대한 수요에 상응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생활기술 교육내용의 총 교육경험율은 56.6%이었으며, 앞으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74.9%로 나타났다.

생활기술분야에 대한 교육경험 내용과 교육희망 내용의 분석결과는 앞으로 여성사회교육기관

Table 7. Priority of Educational Needs by Educational Field

Classification	Frequency(%)
Life management skills	227(62.2)
Farming skills	82(22.5)
Farm management	56(15.3)
Total	365(100)

Table 8. Educational Needs by Educational Field

Unit: frequency(%)

Classification		Educational Experience	Educational Need
Life management skills*	Family caring	205(56.0)	291(79.5)
	Health	258(70.5)	307(83.9)
	Rural environment/housing	230(62.8)	254(69.4)
	Labor environment/chothing	165(45.1)	233(63.7)
	Food/cooking	252(68.9)	283(77.3)
	Earning Extra income	120(33.1)	265(72.4)
	Cultural activities	190(52.5)	273(74.6)
	Hobby/Liberal education	236(65.2)	266(72.7)
	Computer education	208(57.9)	296(80.9)
	Total	1,864(56.6)	2,468(74.9)
Farming Skills*	Seed selection and sowing	172(47.0)	278(76.0)
	Fertilizer usage	151(41.3)	267(73.0)
	Planting	114(31.1)	268(73.2)
	Pesticide	220(60.1)	305(83.3)
	Harvest/storage	125(34.2)	274(74.9)
	Farming machine usage	135(36.9)	231(63.1)
	Total	917(27.8)	1,623(49.3)
Farm management*	Farm management design/Farming recoding	134(36.6)	279(76.2)
	Logistics/Sales	109(29.8)	286(78.1)
	Storage/Packing	129(35.2)	303(82.8)
	Total	372(11.3)	868(26.4)

* 복수응답 결과임

농업경영분야의 교육경험율은 11.3%, 교육희망율은 26.4%로 생활기술이나 농업기술분야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농업인이 전문농업 경영인이 아닌 농사짓는 보조역할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에서 생활기술분야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영농기술 교육내용의 교육경험과 요구

영농작물별로 교육참여율이 높은 내용은 「병충해 방제·생리대책」이 6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작물별 품종선택·파종」으로 47.0%이었고 「시비기술」이 41.3%이었다.

교육희망은「병충해 방제·생리대책」이 8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작물별 품종선택·파종」 76.0%이었으며 「생육관리·육묘」가 73.2%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병충해방제·생리대책」과 「작목별 품종선택·파종」은 교육경험율과 교육희망율이 모두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농업인들이 농사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면서 필수적인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영농기술교육내용의 총 교육경험율은 27.8%이었으며, 앞으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49.3%로 교육경험은 적은 반면 교육요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3) 농업경영교육 내용의 교육경험과 요구

교육참여율이 가장 높은 내용은 「농업경영설계·영농기록장기록」이 36.6%로 높았고, 다음이 「농산물저장·포장」으로 35.2%의 응답율을 보였으며 「농산물유통·판매」는 29.8%였다. 교육희망은 「농산물저장·포장」이 8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산물유통·판매」는 78.1%이었고 「농업경영설계·영농기록장기록」은 76.2%이었다.

IV. 결론 및 제언

여성농업인은 평생을 농사일에 헌신하면서도 생산성이 낮은 농업의 보조인력으로 여겨져왔고, 전문농업인이 아닌 주변인으로 머물러 왔다. 농업·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평가받으려면 전문농업인으로서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기술과 경영마인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은 일반적인 생활기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 특화된 목표와 교육내용을 갖춘 전문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각 영농유형별로 영농기술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아울러 농업경영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교육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고려요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율이 43.1% 보이고 있고, 농업 노동투하량이 경영주(남성)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들은 영농기술과 농업정보에 익숙하지 않아, 여성농업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작업이 남성 노동력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농업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에게 영농기술 교육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더구나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편성시 생활기술내용의 교육만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기술과 영농기술 내용을 적절히 조화시킨 통합교육을 요구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생활기술과 영농기술 내용을 혼합시키는 통합교육이 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와 교육요구에 학력, 연령, 교육비 부담, 영농유형, 영농경험정도, 영농규모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요인들을 고려한 계층별, 영농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생활기술 및 영농기술 등의 교육분야별 교육경험과 교육요구도와의 관계에서 교육경험이 많을수록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마련과 여성농업인이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홍보활동이 개발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생활기술·영농기술 등의 교육분야별로 희망하는 교육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어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여성농업인의 교육만족도와 새로운 수요에 의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자·김재인·이영세·양애경·문유경(1987). 여성사회교육 요구분석. 한국여성개발원.

김경미(2002). 농촌여성의 계층화 현상과 교육서비스 변화 전략. 한국사회학회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김양희·김이선(1999). 경기도 여성농업인 전문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김양희·노숙령·이경희·이현옥·정삼호·조유현·홍병숙(1999). 농촌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 연구. 중앙대인간환경연구원 보고서

김영옥·김이선(1999). 21C 영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이선(1997). 개방농정체제에서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충청남도 3개 마을 사례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정자(1986).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차별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종숙·정명채(1992).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재인·김노마·이정아·김인순(1995).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재인·양애경(1997). 여성사회교육담당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김학성(1989).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 농민교육과 농촌지도사의 역할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농림부(2001). 2000 농업 총조사 잠정결과. 농림부

농림부(1999). 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정책용역연구보고서.

농림부(2000). 21C 정보·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한「농업·농촌기본법령」의 제정경과 및 주요시행내용.

농림부(2000).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2001-2005).

농촌진흥청(1998). 작목별 작업단계별 노동력 투하시간.

라순애(1992). 농촌주부의 생활개선교육 요구분석.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규선(1989). 농촌사회교육요원의 조직풍토 지각과 직무태도의 관련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안덕현 · 김수옥 · 나승일 · 변재면 · 서규선 · 이용환 · 정철영(2001).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연구. 한국농업전문학교.

이금옥(1994). 농촌여성의 생활개선 조직활동 참여와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광명(1992). 농촌여성 생활개선교육 프로그램개발의 요구 분석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기환(1997).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기환 · 최경환 · 이호철(200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운실(1994).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접근. 한국여성사회교육원.

황수정(2002). 농촌여성의 사회교육실태와 활성화 방안.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Dixon B(1982). Women in Agriculture : Counting the Labor Force in Developing Count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8. No. 3, 539-565.

Gasson R(1984). "Farm Women in Europe : Their Need for Off-Farm Employment". Socialogia Ruralis. Vol. XXX-3/4, 216-227.

Haugen M(1990). Female Farmers in Norwegian Agriculture: From Traditional Women to Professional Farmers. Socialogia Ruralis. Vol. XXX-2, 197-209.